



신한금융그룹

그룹 기후변화 대응 원칙



2019. 12. 19 제정

2022. 05. 12 개정

1. 배경

2. 기후변화에 대한 SFG의 대응기조

3. 1.5°C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SFG의 5대 기후행동 원칙

4. 추진체계 구축

1. 배경

- 오늘날 전 세계는 기후변화의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온실가스의 지속적인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폭염, 홍수, 한파 등 이상기후와 그로 인한 다양한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2015년 국제사회는 공동으로 하나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新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이후 202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과 2021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아래로 막기 위한 행동강화를 약속하는 ‘글라스고 기후합의’가 채택되었다.
- 위와 같은 국가적·국제적인 ‘탄소중립 추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세계 경제와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과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일례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산업과 기업은 단기간 상당한 재무적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솔루션에 기여하는 산업과 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
-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형태의 금융을 제공하는 금융산업 전반에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은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제기한다. 금융회사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발굴, 확산시켜 파리협정과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제를 뒷받침할 책무가 있다.
- 이에 신한금융그룹(SFG)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글로벌 프레임워크*의 준수 등 이제까지의 대응기조를 다시 다짐하면서, 향후 한층 고양된 그룹차원의 대응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원칙’을 수립한다.

*CDP(탄소공개프로젝트),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시), UN PRB(책임은행원칙), UN PSI(지속가능보험원칙), 적도원칙, PCAF(탄소회계금융협회), SBTi(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 NZBA(탄소중립 은행연합), NZAMI(탄소중립 자산운용 이니셔티브), NZIA(탄소중립 보험연합) 등

2. 기후변화에 대한 SFG의 대응기조

- 신한금융그룹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금융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왔다.

거버넌스 체계

[이사회내 위원회] ESG전략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경영진] 그룹 ESG추진위원회(그룹사 CEO), 그룹 ESG CSSO협의회 (그룹사 CSO), 그룹 리스크협의회(그룹사 CRO)

사업 전략 및 리스크 관리

- Zero Carbon Drive 전략의 친환경 금융 30조원 지원과 자체 탄소배출량 및 금융배출량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목표 설정
- 「그룹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모범기준」을 기준으로 환경사회적 유의영역 선정 및 모니터링, 금융지원 배제활동 정의, 환경사회 리스크 리뷰 실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감축

- 국가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 이행 등

3. 1.5°C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SFG의 5대 기후행동 원칙

- 앞으로 신한금융그룹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의 5대 기후행동 원칙을 준수한다.

[원칙1] 기후변화가 그룹 경영상 중요한 고려요소임을 인식하며, 그룹차원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기후변화를 그룹 경영에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그룹차원의 종합적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동참하고, 고객, 클라이언트, 규제당국,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도 그룹의 기후변화 전략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칙2] 친환경 사업에 대한 기후금융 및 녹색금융을 활성화한다.

- 신재생 및 고효율 에너지와 관련된 자산 및 프로젝트와 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녹색채권과 기후채권 등 지속가능성본드 발행을 통해 친환경 사업의 원활한 자본조달과 관련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 대출, 보험, 펀드 등 업권별 친환경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확대한다.

3. 1.5°C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SFG의 5대 기후행동 원칙

[원칙3]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한다.

- 금융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금융배출량) 파악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잠재적 영향 및 민감도를 산업별, 자산구성별로 세밀하게 분석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이행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 그룹 금융배출량 감축을 위한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손실 및 자산가치 하락으로부터 고객과 그룹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고탄소 배출 산업 및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 관리한다.
-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를 야기하는 석탄발전 투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

[원칙4] 자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이행한다.

- 그룹 경영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원칙5]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지배구조를 강화한다.

- 지주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인 ESG전략위원회 및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기후변화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한다.
- 지주사 및 자회사의 경영진은 기후변화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 및 관리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4. 추진체계 구축 (1/2)

□ 최고 책임자

지주회사에 그룹차원의 기후행동 원칙 및 지속가능경영의 이행을 총괄 감독하고 지원하는 GCSSO (Group Chief Strategy & Sustainability Officer)를 두고, 자회사별로 담당임원을 지명한다.

또한 그룹차원의 기후리스크관리를 총괄하는 그룹 GCRO(Group Chief Risk Officer)를 두고, 자회사별로 담당임원을 지명한다.

□ 담당 조직

GCSSO/GCRO 및 자회사 담당임원 산하에 담당조직을 두어 구체적인 수행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기능과 역할을 명문화하여 규정한다.

□ 협의체 구성

GCSSO와 자회사 담당임원으로 '그룹 ESG CSSO협의체'를 구성하여, 기후행동 원칙과 지속가능경영 과제의 이행성과를 반기별로 모니터링하고 공유한다. 협의체 산하에 세부 과제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담당조직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둔다.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와 관련한 사항은 그룹 CRO와 자회사 CRO로 구성된 '그룹리스크협의체'에서 논의한다.

구분	그룹 지속가능경영 이행 총괄	기후리스크관리 총괄
이사회 내 위원회	ESG전략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CEO 협의체	그룹 ESG 추진위원회	
업무집행책임자	GCSSO (그룹전략/지속가능경영부문장)	GCRO (그룹위험관리책임자)
그룹사 협의체	그룹 ESG CSSO 협의체	그룹 리스크 협의체
실무단	그룹 ESG 실무협의체	그룹 기후리스크 실무협의체

□ 구성원 교육

기후행동 원칙 및 지속가능경영을 내재화하여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원의 의식변화를 목표로 교육, 훈련을 전개한다.